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
 금융감독원	보도	2020.11.9.(월) 조간	배포	2020.11.6.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	담 당 자	김 기 훈 사무관(02-2100-2962)	
	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 양 해 환(02-3145-7790)			이 태 기 팀 장(02-3145-7780)	
	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차 수 환(02-3145-7680)			조 한 선 팀 장(02-3145-7660)	
	생명보험협회 기획부장 천 승 환(02-2262-6697)			권 승 주 팀 장(02-2262-6617)	
	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장 방 태 진(02-3702-8670)			박 승 호 팀 장(02-3702-8652)	

제 목 : 미성년자,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.

1 추진 배경

-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*를 운영중입니다.

* ①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,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,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

-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*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·공시하고 있습니다.

* ①소송 제기 건수,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

- 그러나,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*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·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.

*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(가해자)의 행위(예: 음주, 뺑소니)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

<구상금 청구소송 vs 기타 소송>

	구상금 청구소송	기타 소송
소송관리위원회 심의	X	O
소송 제기 결정권자	현장 부서장	임원 이상
준법감시인 합의	임의사항	필수사항

- 한편,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*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* ①미성년자(고아) 상대 소송제기, ②사고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제기

2 개선방안 주요 내용

1.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

- **(현행)**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*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,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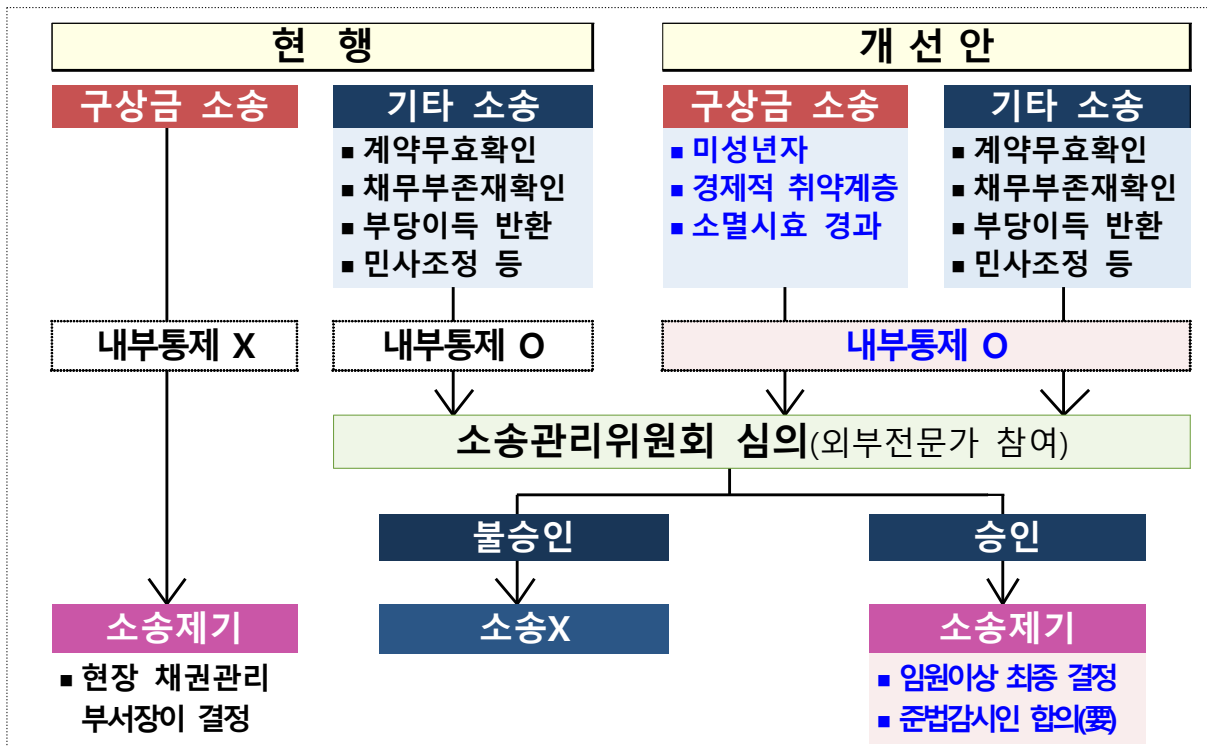
* 채무부존재 확인소송,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,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

- **(개선)** 심의대상을 ①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, ②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
- 또한,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[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(안)]

- ① **(취약계층 상대) 소송무능력자**(미성년자, 한정·금치산자) 및 **경제적 취약계층**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
-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(예 : 기초생활수급권자)은 업계 공동기준 마련
 - 소제기 전에 취약계층 여부 파악, 소송 진행중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 심의
- ② **(소멸시효 경과) 모든 소비자 상대**(취약계층 여부 불문) 구상금 청구소송



2.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·공시 확대

- **(현행)**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①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,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·공시하고 있습니다.
- **(개선)** 비교·공시 범위를 ③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, 심의결과(승인·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)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3.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

- **(현행)**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,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.
- **(개선)**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, (i)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, 시효연장 소송 금지, (ii)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【 취약계층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(예시) 】

- ① (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) 미성년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
- ② (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제외)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 제외
- ③ (시효완성 구상채권 채무면제) 일부 무리한 추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효완성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및 면제사실 통지·공개 내규화 유도

3 추진 계획

- ①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
➡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·추진하겠습니다.
- ② 소송현황 비교·공시 확대 ➡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,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'21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